

# “미래 성장동력 확보·재정 확대 주력”

통합·민생 앞세워 담양 대도약 시대 선언

## 담양군수 박종원

담양군수에 당선된 박종원 당선인이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담양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3일 당선 소감을 통해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오늘의 승리는 박종원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새로운 담양을 선택한 군민 모두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군민들의 목소리를 언급하며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군민들께서 손을 잡으며 ‘담양을 꼭 살려내라’, ‘담양 경제를 다시 일으켜 달라’고 말씀하셨던 간절한 목소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군

민들이 맡겨주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는 행동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양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 규모 확대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가장 먼저 담양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며 “16년 동안 군의원과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쌓은 경험과 더불어민주당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회와 중앙정부 부를 뛰어다니는 ‘담양군 영업사원 1호’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예산 1조원 시대를 조기에 열어 청년들이 돌아오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활력 넘치는 담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농업과 복지 분야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박 당선인은 “농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비롯한 군민 체감형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군민 통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후보들과 지지자들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선거는 끝났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담양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담양=이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 “2030년 인구 10만 고흥 실현할 터”

우주·드론·스마트팜 육성·교통망 확충 강조

## 고흥군수 공영민

공영민 고흥군수 당선인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고흥의 변화와 발전을 완성해 2030년 인구 10만 고흥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공 당선인은 3일 당선 소감을 통해 “다시 한번 고흥 발전이라는 큰 임무를 맡겨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승리는 더 큰 고흥을 향한 군민들의 기대와 성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는 끝났지만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그동안 뿌려온 변화와 발전의 씨앗을 군민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결실로 만들어 민선 9기에서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 이후 통합의 균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공 당선인은 “저를 지지한 군민도, 지지하지 않은 군민도 모두 고흥의 소중한

가족”이라며 “편 가르기 없는 군민 통합을 실천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고흥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선 9기 핵심 과제로는 우주·드론·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3대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그는 “2030년까지 46만평 규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2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고흥만 드론산업단지에는 25개 기업을 유치해 15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공 당선인은 “광주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고흥역·농동역 고속철도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며 “고흥읍에서 나로우주센터까지 4차선 확장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공 당선인은 “균정 발전은 군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선거 과정에서



들은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자산으로 삼아 더 큰 고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드론·스마트팜 산업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2030년 인구 10만 고흥이라는 군민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군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믿음에 성가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 “더 큰 보성 미래 100년 완성하겠다”

농어촌기본소득·KTX 역세권 개발 등 공약 추진

## 보성군수 김철우

김철우 보성군수 당선인은 “지난 8년의 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보성 미래 100년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3일 당선 소감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선택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승리는 김철우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더 큰 보성을 바라는 군민 모두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당선을 지난 8년간 추진해 온 균형 성과에 대한 평가이자 앞으로 보성의 미래를 완성하려는 군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 온 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4년은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큰 책임감으로 균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민선 9기 핵심 과제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주월산 복합 시니어타운 조성, KTX 역세권 개발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군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보성의 성장 기반을 더욱 확고히 구축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비롯해 주월산 복합 시니어타운 조성, KTX 보성역·별교역 역세권 개발, 숙박·체류형 스마트팜 관광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지역 발전과 함께 군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당선인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균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보성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이후 군민 화합도 약속했다.

그는 “선거 과정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이제는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할 때”



라며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의 균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과 함께 만든 변화가 더 큰 보성의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약속드린 핵심 사업들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군민 행복과 보성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8@gwangnam.co.kr

# ‘ACE 해남 완성’ 대한민국 중심도시 도약

“농업·관광·에너지 혁신으로 군민 삶 바꾸겠다”

## 해남군수 명현관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명현관 해남군수 당선인이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ACE 해남’ 비전을 통해 해남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명 당선인은 3일 당선 소감을 통해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당선의 개인 영광이 아니라 더 큰 해남,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군민들의 기대와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3선 임기를 해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로 규정하고, 공약으로 제시한 ‘ACE 해남’ 전략을 완성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농업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어민 소득 향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와 스마트

팜 클러스터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AI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나설 계획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2033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대흥사와 미항사, 윤고산 유적지 일대에 생태정원과 민간정원을 확대 조성해 글로벌 정원관광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연계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해남을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에너지 개발 이익을 군민들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복지와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출산과 보육 지원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복지 서



비스 확충과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명 당선인은 “해남의 해답이 곧 대한민국의 해답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며 “군민과 함께 위대한 해남의 미래를 만들고, 대한민국 남단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해남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 “변화·혁신 완성, 서남권중심도시 조성”

농촌기본소득·RE100산단 유치로 ‘더 잘사는 영암’ 약속

## 영암군수 우승희

우승희 영암군수 당선인은 “영암에서 시작된 변화와 혁신을 완성하고 전남광주 통합시대 서남권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우 당선인은 3일 당선 소감을 통해 “저우승희에게 다시 한 번 영암군수의 권한을 압도적으로 부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결과는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영암의 변화와 혁신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려는 군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재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당선인은 “2022년 선거가 영암의 변화를 선택한 선거였다면, 이번 선거는 영암의 정치 교체를 완성한 선거”라며 “군민들께서 기대된 중심의 넓은 정치를 견어내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정착시켜 주셨

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들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균정을 이끌고 더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우 당선인은 선거가 끝난 만큼 곧바로 균형 현상으로 복귀해 민선 8기부터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민선 9기 핵심 과제로는 농촌기본소득과 RE100 산업단지 유치를 제시했다.

우 당선인은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이제명 정부와 발맞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우 당선인은 “전남광주통합시대는 영암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광역권 발전 전략 속에서 영암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서남권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신뢰와 기대를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자랑스러운 영암군민과 함께 더 잘사는 영암, 더 큰 영암의 미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 “군민과 함께 시작한 변화 반드시 완성”

민생 회복·에너지산업 육성 청사진 제시

## 영광군수 장세일

장세일 영광군수 당선인은 “군민과 함께 시작한 변화를 더 큰 도약으로 이어가고 영광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 당선인은 3일 당선 소감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승리는 민선 9기 균정의 최우선 과제로는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장 당선인은 “지금 영광은 새로운 도약의 갈림길에서 있다”며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 산업을 키워주며 군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광이 가진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RE100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장 당선인은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

마음을 전했다.

그는 “선거는 끝났고 이제는 통합의 시간”이라며 “저를 지지한 군민도, 다른 선택을 한 군민도 모두 소중한 영광군민이다. 생각을 털었다 수 있지만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민선 9기 균정의 최우선 과제로는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장 당선인은 “지금 영광은 새로운 도약의 갈림길에서 있다”며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 산업을 키워주며 군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광이 가진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RE100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장 당선인은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



며 “청정수소 특화단지과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영광의 새로운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당선인은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더 겸손하게, 더 치열하게 뛰겠다”며 “군민과 함께 시작한 변화를 멈추지 않고 반드시 완성해 영광의 미래 100년 기틀을 다지는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영광=정규필 기자 ykjp9@gwangnam.co.kr